

Editor's Picks

July 2025 | 편집부

회화는 이미지 과잉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이 전시는 밀레니얼 세대 작가 6인의 회화를 통해 '다음 회화'를 전망한다. 고등어, 김세은, 유신애, 이은새, 전병구, 정이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온라인 이미지 환경에서 길러진 감각을 회화라는 가장 오래된 매체 안에서 펼쳐 보인다. 고등어는 드로잉을 출발점 삼아 신체에 대한 인식을 회화적 물성으로 재구성하고, 김세은은 도시의 변모를 신체적 경험으로 포착해 풍경으로 옮긴다. 유신애는 고전적 화풍을 빌려 회화 매체의 물질성을 되묻고, 이은새는 일상의 흔적을 수집해 자신의 부유하는 감각을 회화로 번역한다. 전병구는 순간의 감정을 시간의 층위로 응축하며, 정이지는 사진처럼 포착한 장면엔 붓질의 진정성을 덧입힌다. 디지털 속도와 회화의 느린 시간, 가상의 이미지와 물질적 형상의 충돌 속에서 이들은 회화의 고유한 감각을 새롭게 갱신한다. 디지털 이미지가 유행하고 복제되는 시대에도 이들의 회화는 여전히 물리적 사물로 존재하며, 감각과 시간의 층위를 견고히 축적해 나간다.



③ Next Painting: As We Are

국제갤러리

6.5~7.20

